

## 일개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 -일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광환<sup>1</sup>, 김용하<sup>1</sup>, 노상균<sup>2</sup>, 김지희<sup>3\*</sup>

<sup>1</sup>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sup>2</sup>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3</sup>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Drinking Cultur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wang-Hwan Kim<sup>1</sup>, Yong-Ha Kim<sup>1</sup>, Sang-Gyun Roh<sup>2</sup> and Jee-Hee Kim<sup>3\*</sup>

<sup>1</sup>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unmoon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자 함이다. 연구기간은 2009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였으며, 300명의 대학생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성별에 따른 음주관련행태,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원하지 않는 음주상태, 금주 및 금주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계는 SPSS WIN 14.0을 사용하였다. 술을 마시는 중요한 이유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였다. 대학생의 50.3%에서 1년에 2회 블랙아웃(blackout)을 경험하였고, 26.0%가 6개월에 2회 경험하였다고 했다. 술 끊기(금주)의 필요성은 금주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음주는 1학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가장 많았는데, 선배와 친구들이 신입생에서 과도하게 술을 권하였기 때문이다. 금주를 하는 이유는 건강문제(36.9%), 인간관계(34.5%), 금전적인 어려움(20.8%)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음주 교육 실시,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성폭력, 질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금주에 대한 홍보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f general status of drinking cultur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Three hundred college students answer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y 6 to May 10 in 200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drinking-related behavior by gender, recognition and need for moderation in drinking program, and the reason for stopping drinking by gender. The statistical method was done by SPSS WIN version 14.0.

The first drinking time was high school comprising 41.0% of the respondents. The reason for drinking was to get the personal relationship. The experience of blackout was 50.3% in twice a year and 26.0% in twice per six months. The reasons for stopping drinking were health problem(36.9%), personal relationship(34.5%), and financial difficulty(20.8%). These results will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right drinking habit,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vehicle accident and health promotion of the students.

**Key Words** : Alcohol, College students, Drinking culture, Drinking behavior, Drinking culture

### 1. 서 론

자신의 표현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조직 내 규범이 엄격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로 술이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들끼리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 술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고 또 그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렇듯 한국

\*교신저자 : 김지희(kjh1962@hanmail.net)

접수일 11년 09월 28일

수정일 11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11년 11월 10일

사회는 사회생활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술이 꼭 필요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음주 습관은 대학생들과 나아가 중고등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성인 평균 음주율은 68.6%(남 82.7%, 여 55.3%)이며, 20대는 80.8%, 30대는 77.9%, 40대는 75.1%, 50대는 64.5%, 60세 이상은 42.1%, 65세 이상은 38.3%이다[1]. 고등학교의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를 안고 진정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바로 대학생시기인데, 이러한 시기를 잦은 음주로 보내고, 진리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그릇된 음주문화 장소로 되었다. 문제 음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대학생들의 인식 측면에서 문제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잘못된 음주 습관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절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대학생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한다. 또한 건전음주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홍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 조사대상 및 방법

자료 수집은 충남의 K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6일부터 2009년 5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300명의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작성토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며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대상자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박종순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2], 설문 문항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개인적·집단적 음주실태와 문제 음주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진행은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직장을 방문하여 피조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 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성별에 따른 음주관련행태, 성별에 따른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성별에 따른 원하지 않는 음주상태, 성별에 따른 금주 및 금주이유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 WIN(version 1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성별에 따른 절주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경험, 음주교육프로그램 관심도, 교육요구도 및 대학 내 금주프로그램 개설 필요성에 대한 변수는 “있다”가 [1점], “없다”가 [0점]으로 점수화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량에 따른 음주상태에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3-8].

## 3. 조사 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총 300명중 남자 172명(57.3%), 여자 128명(42.7%)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36.0%로 가장 많았고, 3학년 31.3%, 1학년 22.7%순이었으며, 4학년이 10.0%로 가장 적었다. 전공별로는 공과대학이 32.7%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21.3%, 사범계열 19.3% 순이었으며, 기타가 10.3%로 가장 적었다. 동거형태는 친구(룸메이트)와 동거가 56.7%로 가장 많았고, 부모 18.0%, 혼자 15.7% 순이었으며,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2.0%로 가장 적었다 [Table 1].

### 3.2 음주특성

#### 3.2.1 음주관련 행태

처음 음주시기를 보면, 고등학교가 41.0%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32.3%, 중학교 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 달 동안 소주 5잔 이상을 마신 경우는 “있다” 78.3%, “없다” 21.7%로 “없다”보다 “있다”가 높았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술을 마시게 된 이유를 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서와 폭넓은 인간관계가 각각 35.7%, 29.3%로 다른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 현상을 보면, 1년에 1-2회와 6개월에 2회 이상이 각각 50.3%, 26.0%로 다른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원하지 않는 음주경험을 보면, “자주마신다”와 “가끔마신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Unit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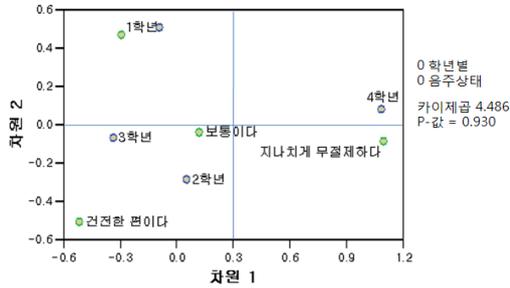
General characteristics	Male	Female	Total	$\chi^2$ -test	p-value
Grade				2.816	0.421
Freshman	39(22.7)	29(22.7)	68(22.7)		
Sophomore	65(37.8)	43(33.6)	108(36.0)		
Junior	55(32.0)	39(30.5)	94(31.3)		
Senior	13(7.6)	17(13.3)	30(10.0)		
Major				2.997	0.558
Human arts	31(18.0)	18(14.1)	49(16.3)		
Science	35(30.2)	29(22.7)	64(21.3)		
Engineering	52(30.2)	46(35.9)	98(32.7)		
Education	33(19.2)	25(19.5)	58(19.3)		
Other	21(12.2)	10(7.8)	31(10.3)		
Living with				3.416	0.636
Alone	25(14.5)	22(17.2)	47(15.7)		
Roommate	96(55.8)	74(57.8)	170(56.7)		
Partners	5(2.9)	1(0.8)	6(2.0)		
Parents	33(19.2)	21(16.4)	54(18.0)		
Siblings	8(4.7)	4(3.1)	12(4.0)		
Others	5(2.9)	6(4.7)	11(3.7)		
Total	172(57.3) (100.0)	128(42.7) (100.0)	300(100.0) (100.0)		

[표 2] 성별에 따른 음주행태 단위 : 명(%)

[Table 2] Drinking behavior by gender Unit : N(%)

Drinking behavior	Male	Female	Total	$\chi^2$ -test	p-value
First drinking				0.448	0.930
Primary school	8(4.7)	8(6.3)	16(5.3)		
Middle school	37(21.5)	27(21.1)	64(21.3)		
High school	70(40.7)	53(41.4)	123(41.0)		
University	57(33.1)	40(31.1)	97(32.3)		
Drinking amount more than one bottle				0.600	0.439
Yes	132(76.7)	103(80.5)			
No	40(23.3)	25(19.5)			
Reason for drinking				4.847	0.303
Push for drinking	26(15.1)	18(14.1)	44(14.7)		
For relationship	57(33.1)	31(24.2)	88(29.3)		
For difficulties	53(30.8)	54(42.2)	107(35.7)		
Just for drinking	27(15.7)	18(14.1)	45(15.0)		
Other	9(5.2)	7(5.5)	16(5.3)		
Black out after drinking				2.128	0.712
Never	29(16.9)	24(18.8)	53(17.7)		
1-2 times per year	89(51.7)	62(48.4)	151(50.3)		
Twice per six months	43(25.0)	35(27.3)	78(26.0)		
Once a week	8(4.7)	3(2.3)	11(3.7)		
Daily	3(1.7)	4(3.1)	7(2.3)		
Unwanted drinking				2.791	0.248
1-2 times per week	8(4.7)	2(1.6)	10(3.3)		
1-2 times per month	43(25.0)	28(21.9)	71(23.7)		
Never	121(70.3)	98(76.6)	219(73.0)		
Total	172(57.3) (100.0)	128(42.7) (100.0)	300(100.0) (100.0)		

다”가 73.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2). 대응분석결과를 보면(Fig. 1), 2학년과 3학년들은 건전한 음주를 하였으며, 4학년들은 무절제한 음주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학년에 따른 음주 상태(대응분석)  
[Fig. 1] Drinking status by grade(correspondence analysis)

### 3.2.2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성별에 따른 절주교육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중 음주경험을 보면 여자 0.26점, 남자 0.33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음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남자 0.61점, 여자 0.67점으로 남자와 여자 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요구는 남자 0.48점, 여자 0.36점으로 여자 보다 남자가 높은 점수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대학 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성으로는 남자0.62점, 여자 0.50점으로 여자 보다 남자가 높은 점수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Table 3).

### 3.2.3 원하지 않는 음주상태

원하지 않는 음주시기를 보면, 신입생 환영회 에서 40.7%로 가장 많았고, 학과의 MT에서 24.0%, 동아리 활동 후 22.1% 순이었으며 선후배모임과 친목모임이 1.0%로 가장 적었고,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음주를 강요하는 사람을 보면 선배와 친구가 각각 47.1%, 42.2%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4]. 대응분석결과를 보면(Figure 3) 사범계열 학생들은 건전한 음주를 하였으며, 공과대학 학생들은 무절제한 음주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음주 조절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단위 : 명(%)  
[Table 3] Recognition and need for moderation in drinking program Unit : N(%)

Drinking moderation program	Male	Female	Total	t-값	p-value
Drinking behavior	0.33±0.47	0.26±0.44	0.29±0.45	1.648	0.200
Experience of program and public relation	0.61±0.48	0.67±0.47	0.64±0.30	0.981	0.323
Need for program	0.48±0.17	0.36±0.12	0.43±0.30	4.162	0.042
University program for drinking moderation	0.62±0.48	0.50±0.30	0.57±0.50	4.500	0.035

[표 4] 성별에 따른 원하지 않는 음주 단위 : 명(%)  
[Table 4] Unwanted drinking by gender Unit : N(%)

Unwanted drinking	Male (n=172)	Female (n=128)	Total (n=300)	$\chi^2$ -test	p-value
The time of unwanted drinking				1.933	0.748
Welcome party	52(43.3)	31(36.9)	83(40.7)		
Festival	13(10.8)	12(14.3)	25(12.3)		
After group meeting	28(23.3)	17(20.2)	45(22.1)		
After MT	26(21.7)	23(27.4)	49(24.0)		
Alumni reunion	1(0.8)	1(1.2)	2(1.0)		
Other					
Drinking				6.614	0.158
Old alumnus	58(48.3)	38(45.2)	96(47.1)		
Younger alumnus	4( 3.3)	3(3.6)	7(3.4)		
Friend(Comrade)	53(44.2)	33(39.3)	86(42.2)		
Professor	3( 2.5)	2(2.4)	5(2.5)		
Other	2( 1.7)	8(9.5)	10(4.9)		

[표 5] 성별에 따른 금주 이유

[Table 5] The reason for stopping drinking by gender

단위 : 명(%)

Unit : N(%)

	Male (n=172)	Female (n=128)	Total (n=300)	$\chi^2$ -test	p-value
Experience of stopping drinking				0.714	0.398
Yes	91(52.9)	74(57.8)	165(55.0)		
No	81(47.1)	54(42.2)	135(45.0)		
Reason for stopping drinking				1.677	0.795
Health problem	32(34.0)	30(40.5)	62(36.9)		
Personal relation	36(38.3)	22(29.7)	58(34.5)		
Economical reason	19(20.2)	16(21.6)	35(20.8)		
Religious problem					
Other's persuasion	5(5.3)	5(6.8)	10(6.0)		
Other	2(2.1)	1(1.4)	3(1.8)		

### 3.3 금주 및 금주 이유

금주 및 금주이유를 보면, 금주 경험 상태를 보면 “있다”가 55.0%, “없다” 45.0%로 없다보다 있다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금주이유를 보면, 건강걱정이 36.9%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문제 34.5%, 경제적 이유 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5]. 대응분석결과를 보면[Figure 4] 2학년 학생들은 절주를 하였으며,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괴롭거나 슬픈 일 그리고, 음주강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자 함이다. 술을 마시는 중요한 이유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였다. 대학생의 50.3%에서 1년에 2회 블랙아웃(blackout)을 경험하였고, 26.0%가 6개월에 2회 경험하였다고 했다. 원하지 않는 음주는 1학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가장 많았는데, 선배와 친구들이 신입생에서 과도하게 술을 권하였기 때문이다. 금주를 하는 이유는 건강문제(36.9%), 인간관계(34.5%), 금전적인 어려움(20.8%)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응답자일수록 친한 친구와 술친구가 더 많이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친한 친구의 음주수준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음주빈도와 양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고, 자신은 친구가 술을 권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주장하였다[9]. 대학생활의 즐거운 생활을 계획하는 오리엔테이션, 선후배간의 정

을 쌓는 MT는 사발식, 파도타기 등 그릇된 음주 문화로 본연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선후배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과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형성되는 음주습관이나 태도가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까지 이러한 습관이나 문화가 계속되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음주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10,11].

대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녀대학생의 음주문제 위험요인으로 사회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즉, 남자대학생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래 및 가족들의 본보기(모델링)가 음주문제에 큰 영향을 주며, 여자대학생은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대학 신입생들은 음주에 대한 가치 정립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은 음주 폐해 문화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된다. 결국엔 끊을 수 없는 연쇄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 때 정립된 음주 문화는 이후 사회생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 내의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은 하나의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2,11,13,14]. 또한 음주는 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비음주자에게 폐해를 발생시키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학교 나아가 사회전체에게 간접폐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음주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하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2006년 강원도 일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 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음주 비율은 12.5%가 된다[15]. 특히 여성의 문제음주에 대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음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정향미 등은 문제 음주 자가진단검사에 의한 음주형태를 보고하였는데[17], 음주빈도가 월 2-4회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 음주량이 7잔 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 간 술이 깬 후 취중의 기억할 수 없었던 횟수가 “전혀 없음”이 67.1%였는데, 이는 1년에 1-2회 정도 블랙아웃(black out)을 경험하는 비율이 50.3%를 차지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자가진단검사서 8이상 11점 이하인 문제음주 집단은 남학생에서 24.9%, 여학생에서 29.9%였으며, 12점 이상인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집단이 남학생 52.0%, 여학생 24.5%였다[17]. 음주 후 원치 않는 사망사고와 사건이 잦다. 급성중독 및 음주로 인한 사고로 많은 대학생들이 사망하고 있다[18].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과음에 의해 2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19].

이상의 보고 자료들을 볼 때, 대학생 음주 문제를 대학생의 낭만과 권리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0,21]. 이제 곧 사회인이 될 대학생들에게 절주라는 좋은 음주 습관을 길러준다면 사회에 퍼져 있는 음주 폐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음주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건전음주 동아리의 대학생 리더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대내외적인 모임은 음주 문화가 형성되는 대학교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 MT를 가면 무조건 술을 먹는다는 인식 탈피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술로 시작하여 술로 끝나는 대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주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금주 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한 체계적인 건전음주 캠페인은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의 음주 폐해를 막을 수 있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한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대학생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전국 대학생 음주문화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2009.
- [2] Park J. 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26, No 4, pp.393-413, 2000.
- [2] Park J.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Vol. 26, No. 4, pp. 393-413, 2000.
- [3] Kim G. C., Kim K. K., Kang C. W., Lee Y.T., Chi G.Y., Kim J.W., Lee I.S., " Study on the investigation od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cial scann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1B), 121-139, 2009(a).
- [4] Kim G.C., Kim K.K., Kang C.W., Lee Y.T., Chi G.Y., Kim J.W., Lee I.S., Yingri Z, "Investigation of demand on the development of 3D facial scanner for the Chines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doct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 2B, 699-715, 2009(b).
- [5] Kim K.K., Kim J.W., Lee Y.T., Lee I.S., Chi G.Y., Kim G.C., "Study on the statistical methods for the 3D facial data in the hyungsang clinical medicine - focused on the dam(gall bladder) and bangkwang(urinary bladder) body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0, No. 3B, pp. 1339-1355, 2008.
- [6] Kim J.W., Lee E.J., Kim KK, "Comparison of diagnosis accuracy of Sasang constitution discrimination function for doctors based on sex, age and BMI",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9, No. 3, 1077-1088, 2007(a).
- [7] Yhang W.J., Jun J.K., Park M.H., " Image evaluation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using correspond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9, No. 3, pp. 1381-1392, 2007.
- [8] Lee K.J., "An attempt to standardize functional data

correspondenc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0, No. 1, pp. 197-210, 2008.

[9] Kim B.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Summer, pp. 76-114, 2000.

[10] Chun S.S.,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2, No. 2, pp. 221-233, 2002.

[11] Chung S.S., "The Influence of Korean Drinking Culture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Alcohol on Risky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7, No. 2, pp. 1-16, 2006.

[12] Roh A.Y., Jung M., "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 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unselling Association*, Vol. 4, No. 1, pp. 5-18, 2003.

[13] Chun S.S., Sohn A.R., Song C.H., Lee J.Y., Kim S.K.,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60 Campuses -",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4, No. 2, pp. 119-135, 2003.

[14] Chun S.S., Sohn A.R., Song C.H., Park J.E., "Comparison of Alcohol Use among Korean and U.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7, No. 1, pp. 1-11, 2006.

[15] Yang S.H., " A Study on the Views on Alcohol,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 Drinking of Women in Some Area", (2006). *Women Health*, Vol. 7, No. 2, pp. 23-45, 2006.

[16] Do E.Y., Kim YH, Kim JH, "Comparison of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Expectanc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Workers and Housewive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0, No. 1, pp. 93-106, 2009.

[17] Jung H.M., Lee J.W.,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9, No. 1, pp. 85-97, 2007.

[18] Baek K.S., "Death due to 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5.

[19] Byun Y.S.,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8, No. 2, pp. 270-278, 2001.

[20] Kim M., Kim H.K., Lee E.H., Kwon E.J., "Stage of Change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8, pp. 1-6, 2007.

[21] Lee C.H., Kim M.S.,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0, No. 1, pp. 55-64, 2009.

**김 지 희(Jee-Hee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고려대 의학과 의  
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 의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  
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김 광 환(Kwang-Hwa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  
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김 용 하(Yong-Ha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 건양대학교 교무부총장  
병원관리학과 부교수  
건양대학교병원 행정원장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노 상 균(Sang-Gyun Rho)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의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 생명공학